

동중부 KCLC Newsletter



내가 부르는 노래 - 타고르

내 진정 부르고자 했던 노래는
아직 부르지 못했습니다.
약기만 이리저리 켜보다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말도 다 고르지 못했습니다.
준비된 것은 오직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꽃은 피지 않고, 바람만이 한숨 쉬듯
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당신의 목소리 또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 집 앞을 지나가는
당신의 가벼운 발걸음 뿐입니다.
내 집에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등불을 켜지 못했으니
당신을 내 집으로 청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당신을 만날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당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CLC in USA 소식

- 지난 2년간 CLC in USA 의장직을 수행하신 김은애 크리스티나 의장께서 앞으로 1년간은 미국 CLC의 집행부에서 post-president로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한인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셨습니다.
- 지난 7월 성 이냐시오 성인 축일 미사에서 Deb Flynn이 미국 CLC 새 의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미국 국가 공동체가 One body로 함께 하는 여정에 주님께 의탁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Exco at Large 임원에 Katharine Winslow가 NCC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어 3년간 봉사하시게 되었습니다.
- 지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프랑스 아미앵에서 세계 CLC 총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5년간 세계 CLC의 방향과 차기 임원진 선출을 위한 식별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 김은애 크리스티나 의장과 베트남 공동체의 Liem이 세계 공동체 자문위원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 차기 리더십 & 공동체 가이드 양성 프로그램 계획 중입니다.
- CLC in USA NCC 대표 모임이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세인트 루이스에서 있었습니다.
- CLC in USA 주관하는 19번 피정이 진행중입니다.

NKCLC 소식

- NKCLC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 NKCLC 내규 Update를 위한 위원회 구성 & 첫 모임 9월 27일
- 19번 피정 동반자 교육 (길벗) 9월에 시작
- 차세대 리더십 시작
- NKCLC 주관 종신 서약자 대상 19번 피정 시작
- NKCLC 주관 양성단계 워크샵 마침





동중부 소식

- 8월 10일~18일 연피정 마침
 - 지도 사제: 박병관 사도요한 SJ, 주제: 묵시록의 신앙으로 사는 오늘
- 10월 14일 동중부 서약식 - 지도 사제: 김우중 스테파노 SJ
- 2024년도 연피정 계획
 - 침묵 피정과 성 이냐시오 순례길, 피정 및 순례 지도 사제: 정희강 베드로 SJ, March 26~April 7, 2024
- 9월 18일 리치몬드 지원기 시작, 참가 인원 7명
- 2023년도 하반기 클러스터 모임 12월 예정 - 모임 자료: 46차 교황님의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동중부 공동체 회원들 소식

- 2023년 연피정 - “묵시록의 신앙으로 사는 오늘”이라는 주제로 박병관 신부님과 함께 2023년도 연피정을 마쳤습니다.



- Fr. Hung (Dominic) Nguyen SJ
- 2021년부터 CLC in USA EA로 봉사하신 Fr. Dom Nguyen께서 2023년도에 은퇴하십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신부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전 회원 대상 양성 단계 Zoom 워크샵 (주제: 공동체 성장 단계) 동중부 발표: 유기 서약 (박이선 유스티나 양성 코디) 의식 성찰 진행: 임 문자 비비안나





로마에서 온 소식

그레고리안 대학 졸업식과 정강엽 신부님의 감사편지,

Mark A. Lewis SJ 총장님의 동중부 지원에 대한 감사 편지, 가 로마에서 왔습니다.

+ 주님의 평화

김 실비아 회장님 그리고 동중부 KCLC회원 여러분,

여름 햇살이 따갑지만 그 뜨거운 속에서 가을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햇살을 다시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그간 모든 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심을 기원합니다.

최근 읽고 말하고 싶은 것이 도리어글리칸 주간 이렇게 편지로 갈무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6월 15일에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는 마지막 의미 있는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리더십과 관리 (licentiate in leadership and management)에서 2년간 공부를 마친 41명의 학생들이 제 1회 졸업장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대부분은 제 3세계 출신의 - 5개대륙 28개국 - 수녀님들과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도회나 교구는 지역적인 재정 수단으로 그들을 유학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께서 매년 주시는 도움과 기도도 그들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에게 자신에서 표현한, 후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향한 기쁨과 감사 인사함 그대로 전할 수는 없지만 그들만큼 제도 기쁨과 감사함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나누는 이 소식으로 그간 이 세상과정에 보여주셨던 사랑과 기도와 그 누구도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였기를 바랍니다. Mark Lewis 그레고리안 대학 총장신부님의 친필 어린 감사 인사도 함께 전합니다.

최성훈, 박형철도, 그리고 베르니나는 저와 인연이 깊은 분들이어서 더욱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모든 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을 구하는 기도와 미사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7.22 로마

정강엽 베네딕도 신부



Prot. R/231-23

Dear Ms. Sylvia Kim and members of MAR-KCLC,

I write to thank you for your recent gift to the Pontifical Gregorian University for the support of our Licentiate in Leadership and Management in the Faculty of Social Sciences. As you know this program was developed to assist emerging leaders in the Church to obtain useful skills in management as they begin to lead various institutions in their local churches or religious communities.

Your contributions have provided the means for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They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but scholarships particularly benefit the developing regions in Asia and Africa. What they learn at the Gregorian will return to their local churches as skills to lead and manage the local church and the many institutions provided by the Church to help their people.

Pope Francis often reminds us of our interconnectedness with the rest of the world. We are indeed *fratelli tutti*, all brothers and sisters in this world. You are helping with this interconnectedness with the mission of evangelization that has been entrusted to each of our students as we send them back to their homes.

With prayers for you and your families, I remain,

Yours in Christ,

Mark A. Lewis S.J.

Ms. Sylvia Kim
19616 Edgemont Sq.
Ashburn, VA 20147
U.S.A.

2024년 부활 성주간 침묵 피정과 순례를 스페인에서...

동중부 주관하는 2024년도 연피정은 부활 성주간을 스페인 살라망카 예수회 피정집에서 4박 5일 침묵피정을 마치고, 7박 8일 성 이냐시오 순례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 일정 안내
 - 출발: 3월 26일 Dulles 공항 (or 각자 지역에서 출발)
 - 도착: 3월 27일 마드리드
 - 침묵 피정 시작: 3월 28~4월 1일까지 (살라망카 피정집)
지도 사제: 정회강 베드로 SJ
 - 순례 시작: 4월 1일 아빌라 & 세고비아
4월 2일 톨레토 & 마드리드
4월 3일 로올라 & 하비에르
4월 4일 사라고사 & 몽세랏
4월 5일 몽세랏 & 수도원 대 미사
4월 6일 만레사 & 바르셀로나
 - 순례 파견: Dulles 공항 도착
- 예상 비용: 성지 순례, 일인당 \$2,700~\$2,790
* 피정집 숙박료 별도 (+ \$350 예상)
- 현지 사정과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문의: 김영옥 실비아 703-969-5067, 오종선 로사리아 443-453-3782



“내년 부활 성주간에 있는 스페인에서의 침묵피정과 순례에 관심 있으신 비 회원들에게도 홍보해 주세요~”



마태오 10,5-6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주님, 오늘 복음은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중의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마스크를 써야 할 때 어린이보다 제가 먼저 마스크를 쓰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고개가 끄덕거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자아에 대한 인식의 우선성은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왜 광야에 나가 40일동안 지냈는가를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은 바로 자아를 알아가는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우선성의 맥락에서 왜 당신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라고 정답을 말함에도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기 전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침묵의 기간을 거치라는 말씀이셨지 않은가요?

오늘 당신의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길 잃은 이스라엘 집안에 먼저 가라는 명령은 자아를 아는 삶의 핵심으로 먼저 들어가는 초대입니다. 삶의 순서를 말씀하십

니다. 밖으로 (다른 민족) 나가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예수를 알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나의 내면에 있는 나의 집안을 (이스라엘)을 먼저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의 단단한 자기방어의 신발을 벗어던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탈출기 3,5) 당신이 보시는 것은 저의 먼지 덮인 무디어진 발이 아니라 신발을 벗어내며 자비를 청하는 저의 티 많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12,1-8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7)

주님, 자비. 그런데 자비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자비에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 늦은 정의는 실현되지 못한 정의이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라고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글래드스톤(William Ewart Gladstone) 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의의 관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의 억울함을 다루는 “때”를 맞추지 못하는 정의실천은 뒷북치는 것이고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함이 아닐까요?

자비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자비도 생명이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도 현재라는 식량이 필요합니다.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는 것. 그 배고픔에 함께 하는 것. 그 배고픔을 이해하는 것. 그것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자비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때늦은 자비는 한탄과 자기합리화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눈앞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 분 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신 분” (시편 145:8)

마태오 13,18-2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여라.” (18)

주님, 당신의 씨앗은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어느 곳에도 뿌려집니다. 4가지 상태에서 뿌려진 씨앗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쉽게 빠질 수 있는 착각을 경계합니다.

1.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상태인가에 종속된다는 말은 착각입니다. 자애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아무런 관계 없이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무상의 은총입니다. 당신의 자비는 결코 우리의 비참함을 비켜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

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마태오 5,45) 하느님의 사랑의 잣대는 눈금이 없습니다.

2. 우리는 자주 4가지 땅의 모습 중 어떤 것이 나의 것인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한다는 말은 착각입니다. 이 4가지는 하느님의 말씀앞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내면의 4가지 인생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삶의 전체는 현재의 모습으로 쉽게 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삶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물들이 담겨 있는지요. 선부른 판단은 온전하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휴화산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새 인간이 되었지만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콜로새 3,10)

끊임없이 새로워지라는 말은 우리가 노력하라는 말보다는 오늘 ‘새겨 들어라’는 당신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거나 포로였을 때 예언자들이 했던 말은 노력하라, 성실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니 귀를 기울이라 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

마태오 17,1-9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4)

“오직 절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독일 철학자 아도르노 (Theodor Adorno: 1903-1969)는 말합니다. 근거 없는 거짓 희망찬가에 중독된 한국 사회에 어떤 울림이 있을까요? 아름다움은 혼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희귀함에서 더욱 빛나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요즈음 희귀함이 아니라 누구

나 팔기에 급급한 시장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을 팔기 전에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올바르게 절망하는 하는 법을 배워야합니다. 바닥을 경험하는, 절망을 나의 이야기로 경험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절망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희귀하고 고귀하기에 성스러운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눈앞에서 만나는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순간 베드로의 눈에서 수난도 죽음도 십자가도 사라졌습니다. 바로 전에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번째 예고를 부인하자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고 야단을 맞았던 기억을 송두리째 잊어버린 베드로입니다. (마태오 16,21-23)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반드시 허당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바닥에서 일어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 오고 새벽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2 베드로 1,19). 넘어진 숫자만큼만 일어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루카 7,11-17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13-14)

어떤 한국 텔런트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팀과 도착 후 움막에서 누워있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몸을 눌러 보니 누르는 자리마다 고름이 있었기에 의사와 텔런트는 몇 시간에 걸쳐 소독약으

로 그녀의 몸을 닦고 고름을 제거하였답니다. 치료를 다 마쳤을 때 삼십 대 중반의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는데 마치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여인은 텔런트와 의사를 보며 “이제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텔런트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그 사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사람은 그 느낌을 간직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면서 가지신 가엾은 마음 안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겹쳐서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복음에는 예수님이 두 사람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라자로를 살리고 (11,1-45) 그리고 오늘 외아들도 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어찌하면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과부까지도 다시 살리십니다. 과부의 형언하기 어려운 상실감을 제때에 다시 아들을 살려주시며 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듯 어떠한 처지에서 사람을 만날 때 “제 때”에 어루만질 수 있는 만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늦은 한탄과 후회는 미래에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미리 설계하는 마음도 있지만 많은 부분 자기 합리화이자 자기 연민과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영적 지도 신부님은 “모든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처를 어루만지는 조심스러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기...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의 가장 아픈 상처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은총을 구합니다.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은총을 구합니다. 그 상처를 “제 때”에 어루만져줄 은총을 청합니다. 그 제때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있는 사람을 다시 생명으로 이끄는 순간일 수 있음을 의식하는 은총을 구합니다.